



## 옥주호연(玉珠好緣) | 작가 미상

수능완성 240쪽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웅 군담소설로 영웅적인 남녀 세 쌍의 활약과 결연을 담고 있는데 특히 여성 영웅에 주목하여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사회 진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 작품 다가가기

### 전체 줄거리

고향에 은거하던 최문경이 기이한 꿈을 꾸고 아이를 잉태함

중국 오대 시절 상림촌에 유명한 재상 최문경이 부인 서씨와 함께 공손하고 검소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며 자식을 얻기 위해 여러 명승지에 정성을 다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최문경이 한림학사로 있을 때 임금이 어리고 소인배들이 전권을 휘두르자 그는 관직을 사퇴하고 고향에 돌아와 학업에 힘썼다. 최문경은 그해 봄 가마를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다가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던 중 길가에 있는 큰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중국 고대 성왕인 우왕의 묘라고 써 있었다. 이에 놀란 최문경은 예를 갖추고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는 잠시 잠이 들었는데 홀연히 관원 수백 명을 거느리고 왕자가 나타나 최문경에게 세 개의 옥구슬을 주었다. 잠이 깬 최문경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과연 부인의 배가 불러왔다.

세 아들을 얻은 최문경은 한 도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을 광련산 진원 도사에게 보냄

하루는 한 도사가 찾아와 큰 별 세 개가 최문경의 집을 비추었으니 반드시 기이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최문경의 집에 머물며 아이가 태어나면 사주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최문경은 기뻐하여 허락했더니 다음 날 새벽 5시쯤 부인이 세쌍둥이를 출산했다. 도사는 아이들이 복이 많은 사주이니 13세가 넘으면 광련산 진원 도사에게 술법을 배우게 하라고 이야기한 후 사라진다. 최문경은 첫째는 완(琬), 둘째는 진(珍), 셋째는 경(璟)이란 이름을 짓는다. 세 아들이 성장하여 10세가 되니 용모가 뛰어나고 총명했다. 최문경은 도사의 말을 생각하고 세 아들을 광련산 진원 도사에게 보냈다.

세 아들과 같은 시간에 유원경의 세 딸이 태어남

태주의 부자 유원경은 부인 왕씨와 함께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 한탄했다. 무창에서 많은 돈을 벌고 금산사에서 묵을 때 유원경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 금산사에 불상을 만들도록 돈을 내면 큰 복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유원경은 많은 돈을 내어 불상을 만들도록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깐 조는데 다시 부처가 나타나 그의 부인에게 붉고 푸르고 흰 구슬 세 개를 주면서 딸을 셋을 낳을 것이니 그녀들이 가문을 빛내고 부모께 효를 다할 것이라 이야기한다. 잠에서 깬 유원경이 부인 왕씨에게 이를 전하자 그녀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부부는 크게 기뻐했는데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고 열 달이 지난 뒤 신묘년 신묘월 신묘일 신묘시에 딸을 낳았다. 그 이름을 각각 자주(紫珠), 벽주(碧珠), 명주(明珠)라 하였다.

세 딸은 유원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예를 익히다가 마침내 집을 나옴

세 딸이 10세가 되었을 때 절세의 미모와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칼 쓰기와 말 달리기도 익히기 시작했다. 이에 부인 왕씨는 세 딸을 질책했으나 그녀들은 여성의 예절을 지키기보다는 무예를 배워 공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다 후원에서 무예를 익히고 있는 딸들을 보게 된 유원경은 크게 놀라 화와 화살, 병서를 모두 불태우고 부인을 나무란다. 이를 본 세 딸은 자신들을 질책하되 어머니를 나무라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유원경은 더 노하여 부녀의 의리를 끊겠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세 딸은 수 개월 후 어머니 왕씨가 말리는데도 다시 무예를 익힌다. 결국 유원경은 세 딸이 여전히 무예를 익힌다는 말을 전해 듣고 딸 하나를 죽여 둘을 징계하겠다고 칼을 들고 후원으로 가려는 것을 부인 왕씨가 간신히 말린다. 이날 저녁 문안을 오다가 이러한 기미를 눈치챈 세 딸은 자신들의 운명을 슬퍼하다가 결국 공을 세워 금의환향하겠다는 글을 써 놓고는 남장(男裝)을 한 채 몰래 집을 나간다.

유원경의 종형 유도경은 세 딸이 영웅이 될 것임을 짐작함

다음 날 아침 유원경은 세 딸이 남긴 글을 보며 슬퍼하고 있는데 그의 종형 유도경은 오히려 세 딸을 칭찬하면서 유원경을 위로했다. 유도경은 예전에 한 기이한 승려를 만나 자손 중 세 명의 여성 영웅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유원경의 세 딸이 그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원경은 십 년 동안 딸들을 보지 못할 것을 한탄하며 슬퍼한다.

### 최문경의 세 아들과 유원경의 세 딸이 의형제를 맺고 함께 수학함

세 딸은 단양 지역 큰 강가 주막에서 우연히 최문경의 세 아들을 만난다. 납장을 한 유원경의 세 딸을 본 최문경의 세 아들은 자리를 함께하며 서로 통성명을 하고 생년월일이 같다는 사실도 알게 되자 의형제를 맺자고 제안한다. 세 딸도 이에 호응하여 의형제를 맺고 그들과 함께 광련산 스승을 찾아가간다. 광련산 도사는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비밀스러운 병서와 신기한 무예를 가르치니 반년이 못되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때 도사의 제자 중 왕정빈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병서와 천문지리에 상당히 뛰어났는데 도사는 그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자 세상에 내보낸다. 6인은 왕정빈을 전송하며 자신들도 공부를 마친 후 그를 찾아갈 것이니 그때 오느니 정과 의리를 기억하라고 당부하자 왕정빈은 이를 응낙하고 떠나간다.

### 세 아들과 세 딸도 스승을 떠나 세상으로 나옴

세 아들과 세 딸이 공부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도사는 제자들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으니 세상에 나가 주인을 섬겨 이름을 널리 알리라고 말한다. 이들은 도사에게 이치에 밝은 천자를 알려달라고 하나 도사는 은둔한 지 70여 년이라 세상사를 모르니 황하산 귀곡 선생을 찾아가라고 알려 준다. 세 아들과 세 딸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하직하고 선생을 떠나 세상에 나온다.

### 세 아들과 세 딸은 귀곡 선생을 찾아가 섬길 군주를 물음

6인은 황하산 귀곡 선생을 찾아가는다. 귀곡 선생이 6인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자 6인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사부의 명을 받아 길흉화복을 여쭙고자 왔다고 대답한다. 귀곡 선생은 6인의 사주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알고 놀라면서 외모가 더욱 비범하고 이름이 역사에 길이 빛날 사주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6인은 자신들이 섬길 군주를 알려 달라고 하니 선생은 절도사 조홍의 아들 조광윤(趙匡胤)을 찾아 섬기라고 알려 준다. 이에 최완과 유자주는 자신들의 길흉화복도 알려 달라고 청하자 선생은 붓을 들어 시 한 수를 써 주었지만 6인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해 그 뜻을 묻자 선생은 천기의 비밀이기에 경솔히 말할 수 없으나 이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면서 빨리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6인은 사례, 하직하고 번성(幡城)으로 향한다.

### 6인은 조광윤을 만나 중요한 임무에 자원하여 큰 공을 세워 전쟁에서 승리함

이때 북한(北漢)이 자주 변방을 침공하자 천자는 조광윤을 원수에 임명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나가라고 명한다. 6인은 번성에 이르러 조광윤 휘하에 있던 왕정빈을 찾아가 만난다. 다음 날 조광윤이 무사들을 모아 출전에 대해 의논하고 있을 때 왕정빈은 6인을 천거한다. 이에 조광윤은 6인을 만나 그들의 사람 됨됨이를 사랑하여 크게 기뻐하며 장군으로 삼는다. 6인은 북한의 병기를 보관하고 있는 원양성을 파괴하는 중요한 임무에 자원하고 조광윤은 그들에게 각 천 명의 군사를 내린다. 최완과 유명주는 변장하고 원양성에 거짓으로 투항하여 적장 장림을 함정에 빠지게 하여 성을 차지하고 장림과 부하들을 생포한다. 이에 조광윤은 최완과 유명주를 칭찬하고 연이어 정병 일만 명을 이끌고 북국으로 쳐들어간다. 이미 전세가 기운 싸움에서 왕정빈과 6인은 적군의 장수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항복을 받아낸다.

### 조광윤이 천자에 오르고 6인은 높은 직위에 임명됨

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광윤은 큰 잔치를 벌이는데 모든 장수들이 그에게 천자에 오를 것을 강권한다. 이에 조광윤은 이것 역시 천명(天命)이라며 마지못해 제위에 오른다. 백성들 역시 그를 환영하여 맞아들인다. 조광윤은 송 태조 무덕 황제라 칭해졌고 공신들에게 관직을 내렸는데 왕정빈은 표기 장군에, 최완은 평무 장군에, 최진은 용양 장군에, 최경은 평양 장군에 올랐다. 이어 유자주는 화수 장군 완사후에, 유벽주는 매향 장군 채상후에, 유명주는 옥투 장군 거안후에 봉한다. 세 딸은 송 태조가 자신들이 납장을 하고 있는 여성들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불안해한다.

### 최완 형제는 유자주 자매의 정체를 파악하려 함

세 딸은 집을 나온 지 7년이 지났기에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말미를 달라고 청하나 태조는 생각이 있다며 참으라고 한다. 어느 날, 최완 형제는 황하산 귀곡 선생이 알려준 것과 태조가 특별히 이름을 지어 봉작한 것 등을 떠올리며 유자주 자매가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계락을 꾸민다. 세 형제는 세 자매를 초청하여 술자리를 벌이는 척하면서 자리에서 빠져 숨은 채 그녀들끼리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세 딸이 고향의 부모께 돌아가는 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삼 형제가 나타난다. 삼 형제와 세 딸은 서로를 놀리려고 일부러 그러한 장난을 한 것이라 우긴다.

## 태조, 태후가 최완 형제와 유자주 자매를 성혼시킴

최완 형제가 유자주 자매의 정체를 승상에게 이야기하자 승상 역시 태조에게 이를 말한다. 그러자 태조는 유자주 자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라 말하고 태후와 상의한다. 태조와 태후는 최완 형제와 유자주 자매의 혼사를 주관하기로 하고 몰래 길일을 택일한 후 칠월 보름날 큰 연못에서 잔치를 연다. 그리고는 태조는 연꽃을 구경하다가 최완 형제와 유자주 자매에게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명을 내린다. 최완 형제는 흔쾌히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고자 하나 유자주와 자매들은 주저한다. 이에 태조는 짐짓 노한 표정을 지으며 무사에게 유자주 자매의 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 하자 그때서야 유자주 자매는 울면서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이를 들은 태조는 태후가 세 자매의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최완 등 삼 형제에게 유자주 자매와의 혼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완 형제는 태조에게 감사를 표한 뒤 혼례를 갖추고 유자주 자매는 어쩔 수 없어 성례한다. 예식이 끝난 후 태조와 태후를 만난 세 자매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사직을 청하자 태조는 황금과 비단을 상으로 내린다. 다음 날 최완 형제와 유자주 자매는 친정에서 다시 혼례를 치른 뒤 시부모를 뵙기로 한다.

## 6인은 유원경 부부를 찾아가 성례한 후 시댁으로 떠남

세 딸을 떠나보내고 7년 동안 한탄하던 유원경 부부는 갑자기 찾아온 유자주 자매를 보고 놀란다. 세 딸은 그간의 사정을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유원경 부부는 길일을 택해 성례를 치르고 잔치를 연다. 친척들과 빈객이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다. 이렇게 10여 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는데 최완 형제는 시댁으로 떠날 것을 세 자매에게 이야기한다. 이에 6인은 유원경 부부를 위로하며 하직하고 시댁으로 향한다.

## 6인은 최문경 부부를 찾아가 성례를 치름

최문경 부부 역시 8년 동안 소식을 알 수 없어 걱정이 컸는데 세 아들이 각각 부인과 함께 오니 크게 기뻐한다. 세 아들은 부모께 인사하고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자 최문경 부부는 큰 잔치를 베풀어 이들을 축하한다.

## 삼 형제와 삼 부인은 화목하게 살다가 최문경, 유원경 부부가 세상을 떠남

이때 태조가 최완 형제와 삼 부인에게 빨리 상경하라고 조서를 내리자 그들은 부모와 빙부모를 모시고 경성으로 올라온다. 태조는 최완 형제를 반겨 맞으며 삼 부인은 삭망으로 조현하라고 한다. 이에 삼 부인은 감군은(感君恩)이란 노래를 지어 부른다. 태조는 최문경과 유원경에게도 관작을 내렸으나 둘은 극구 거절하고 천자의 성을 추원했다. 20여 년간 삼 형제와 삼 부인은 자손이 번성하고 복록이 무궁했으며 부모를 효로써 봉양하고 자녀를 교육하여 그 화목함이 대단했다. 그러다 최문경 부부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또한 유원경 부부 역시 세상을 떠나자 상례를 갖추어 장사를 지냈다.

## 삼 형제, 삼 부인의 일생과 자손의 번성

세월이 흘러 최완 부부 70세가 되었을 때 삼 형제와 삼 부인이 일조에 같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의 자손들은 몹시 슬퍼했다. 그 후 최완의 증손 최방현은 인종 황후의 명으로 최완 삼 형제와 유자주 삼 부인의 공적을 기록했다. 이를 받아 본 인종 황후는 ‘삼옥삼주기연(三玉三珠奇緣)’이라 이름하여 전(傳)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하니 최가의 복록과 은총이 대대로 끊기지 않았고 자손이 창성하였다.

##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영웅소설, 군담소설
성격	전기적, 영웅적, 낭만적
배경	시간적 : 중국 오대(五代) 시절 공간적 : 중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제재	삼 형제와 세 자매의 삶
주제	삼 형제와 세 자매의 영웅적 삶
발표	연대 미상(조선 후기로 추정)

## 등장 인물

- **삼 형제** : 최완, 최진, 최경 삼 형제 중 최진과 최경의 성격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최완은 장남에 어울리는 책임감을 보인다.
- **세 자매** : 삼 형제에 비해 세 자매의 특성은 다양하게 드러난다. 첫째 자주는 장녀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포용력 있는 인물이다. 둘째 벽주는 큰일에 앞서 걱정이 많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으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향을 생각하며 시를 읊는 등 감수성이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 셋째 명주는 사건을 주도하며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로 결단하는 등, 대담하며 용감한 행동을 하는 인물이다.

## 서술상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되고 있음. 일대기적 구성 방식.
- 신분을 감추기 위한 **남장 모티프**가 사용되고 있음 : 유자주 세 자매의 영웅적 자질이 남장 모티프에 의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 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는 **간접화된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함께 볼 작품

### ▶ 「다모전(茶母傳)」, 송지양

- 비천한 신분의 관리이지만 정의심이 강하고 자신의 관점이 분명한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진 주인공 김조이를 통해 본받을 만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인다.

## 해제

「옥주호연」은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삼옥(三玉)**인 최완, 최진, 최경 등 최문경의 **삼 형제**와 **삼주(三珠)**인 유자주, 유벽주, 유명주 등 유원경의 **세 자매**의 신이하고 아름다운 **결연담**을 중심으로 한 **영웅소설**이다. 전통적인 영웅소설의 **일대기 양식**을 계승하여 주인공들의 출생·수도(修道)·군담·혼인 등으로 구성하였고 주제 면에서는 여성 의식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우위의 영웅적 여성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다른 여성 영웅소설과 달리 남자 주인공들과의 **협력을 통한 결연 과정**을 작품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주인공이 **삼 형제**와 **세 자매**라는 점과 고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비현실적인 배경 및 장면**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 내용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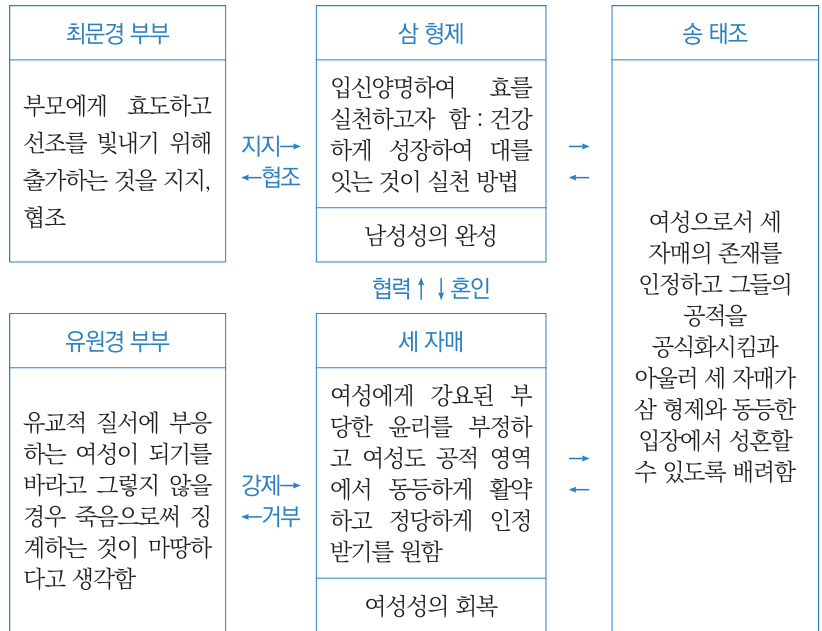
### ▶ 「옥주호연」의 사건 전개 양상

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향에 은거하던 최문경이 고대 우왕의 묘에 예를 갖추고 혈육을 접지받음</li> <li>- 세 아들을 얻은 최문경은 한 도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을 광련산 진원 도사에게 보냄</li> <li>• 유원경은 삼산사의 불사를 도와주고 부처로부터 세 딸을 접지받음</li> <li>- 세 딸은 유원경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예를 익히다가 결국 집을 나옴</li> </ul>
↓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 형제는 세 자매와 우연히 만나 의형제를 맺고 함께 광련산 진원 도사 밑에서 수련함</li> <li>• 삼 형제와 세 자매는 3년 후 진원 도사를 떠나 황하산 귀곡 선생을 찾아감</li> <li>- 귀곡 선생은 조광윤을 찾아 섬기라고 말하며 삼 형제와 세 자매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만 그들은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었음</li> <li>• 6인은 조광윤 휘하로 들어가고 중요한 임무에 자원하여 큰 공을 세움</li> <li>- 조광윤은 천자에 오르고 삼 형제와 세 자매는 높은 직위에 오름</li> </ul>
↓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완 형제는 유자주 자매의 정체를 파악하려 함</li> <li>- 최완 형제는 유자주 자매를 술자리에 초청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듣는데 유명주는 자신들에 대한 의혹을 부인함</li> <li>• 태조와 태후는 유자주 남매의 정체를 눈치채고 최완 형제와 유자주 남매의 혼사를 돕기로 함</li> <li>- 연못가에서 잔치를 벌인 후 최완 형제와 유자주 자매에게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명하자 유자주 자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힘</li> </ul>
↓	
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조와 태후 앞에서 삼 형제와 세 자매는 혼례를 올림</li> <li>• 유원경, 최문경의 집에서 다시 한 번 혼례를 치르고 태조의 부름을 받아 온 가족이 경성으로 올라옴</li> </ul>
↓	
결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인의 자녀가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림</li> <li>• 최완의 증손인 방현에게 삼 형제와 세 자매의 행적을 기록하여 '삼옥 삼주 기연'이라 이름하여 기록을 남김</li> </ul>

## ▶ 방한림전(方翰林傳), 작가 미상

- 「옥주호연」과 달리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죽을 때까지 남자로 행세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여인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 「옥주호연」의 등장인물 간 관계



## ▶ 효의 이중성으로 인한 부녀간 갈등

「옥주호연」은 당대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였던 **전통적 효 관념의 이중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유원경**과 그의 **세 딸 사이의 갈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유원경은 세 딸이 여성으로서 규방의 예절을 익히고 행하는 것, 그러다가 어진 배필을 만나는 것만이 문호를 빛내는 **효**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다. 동시에 그는 세 딸이 여성의 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곧 패도(敗道)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아가 자신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을 세 딸이 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극단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전통적 효에 대한 유원경의 이중적 생각은 세 딸이 여성으로서 전통적으로 해야 하는 가정적인 일을 외면한다면 불효이며 이러한 불효를 행한다면 죽음으로써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세 자매는 공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기를 바라며 계속 무예 훈련을 한다. 그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공훈을 세우고 그 공훈으로 가문을 빛냄으로써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그러다 마침내 세 자매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남복(男服)으로 변장**하고 집을 떠날 생각에까지 이른다. 결국 효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이 계기가 되어 세 자매는 아버지인 유원경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부녀의 갈등은 작품의 결말에 이르러 세 자매가 자신의 **여성성을 회복**하고 최완 삼 형제와 **성혼**한 후 **금의환향**하여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해소된다.

#### ▶ 삼 형제와 세 자매 간의 협력을 통한 성 갈등의 해소

「옥주호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른 여성 영웅소설과 달리 **남성 인물들과의 갈등, 대립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완 삼 형제는 유 자주 세 자매가 남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녀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성이었음을 알지 못한다. 귀국 선생과 조광윤도 세 자매가 여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가 세 자매 중 둘째인 유벽주가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시를 듣고서야 비로소 그들은 세 자매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이후 **최완 삼 형제**는 ‘용렬한 장부를 무수히 주어도’ 세 자매와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점은 다른 여성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남성들과 색다른 점이다. 여성 영웅소설 속 남성들은 대체로 여성 영웅이 남장을 한 여성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 기존의 **동료적인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최완 삼 형제는 공적 영역에서 함께 활약한 동료로서 남성 못지않은 **세 자매의 영웅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최완 삼 형제는 세 자매를 술자리에 초대하여 스스로 여성임을 밝히도록 하는 속임수를 통해 세 자매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파악했음에도 일시 희롱한 것이니 노하지 말라고 농담을 할 뿐 남장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옥주호연」에서는 다른 여성 영웅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 영웅과 남성 영웅 사이에 첨예한 **성(性)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삼 형제는 세 자매가 여성임을 태조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태조가 세 자매의 여성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는 **남녀 양성 사이의 첨예한 대립에서 나타나는 성 갈등보다는 오히려 동료애를 바탕으로 남녀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 남장 모티프의 기능과 의미

세 자매는 부도(婦道)를 강요하는 현실에 저항하며 남장하고 가출한 다음 남성으로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출장입상하고 최완 삼 형제와 혼인할 때까지 계속 남자로서 행동하며 입신양명의 정점에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유자주 세 자매의 영웅적 자질은 남장 모티프에 의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때 남장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편견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요소이자, **유교적 이념이 지배하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지닌다.



## 깊이 이해하기

### 심화 학습

#### ▶ 여성 영웅소설의 출현 배경

조선 후기에 목판으로 출판된 방각본 소설의 유통,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세책가(貰冊家)의 성행 등으로 소설이 대중화되었고, 여성 독자의 수도 늘어났다. 주요 독자층으로 부상한 여성 독자의 요구와 근대적 인식이 소설에 반영되었는데, 이와 같은 **소설의 대중화**와 **여성 독자층의 확대**는 **여성 영웅소설의 출현**에 영향을 끼쳤다.

**가부장적 질서의 심화** 또한 여성 영웅소설 출현의 동인으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내외분별(內外分別)의 유교 이념이 강화하면서 여성들은 집안에 윤택되었다. 억압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선 후기 여성들은 상하층을 막론하고 이러한 모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사회 진출의 염원 역시 더욱 강해져 여성들은 소설이라는 상상 속 공간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가정을 뛰어넘어 세계의 중심이라 여겼던 중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여성 영웅의 모습을 꿈꿀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 여성이 주역으로 부상한 것은 소설 공간이 여성들에게 이상향이자 안식처로 작용한 것과 관련 있다.

#### ▶ 조선 후기 여성 영웅소설의 세 가지 유형

##### • 「박씨전」

여주인공 박씨는 남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남성 조력자로서의 여성'이라 할 수 있다. 박씨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여성의 영역인 피화당에 머물면서 공적 영역의 활동에서 자신의 몸을 감추는 한계를 보인다. 또 그가 추녀에서 미인으로 탈바꿈한 것은 여성성의 표출이 남성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씨 부인은 작품에서 자신의 영웅적 활동을 마친 뒤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이는 전통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 「옥주호연」

이 작품의 여성 인물들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거부하고 남장을 하면서까지 과업을 성취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정체가 밝혀지고 남성 인물들과 결연을 맺은 이후 다시 가정으로 회귀하여, 전통사회의 여성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한다. 이는 '과도기적 주체'로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 「흥계월전」

이 작품의 여성 인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공적 영역에 진출해 활약하고, 여성임이 드러난 후에도 이전에 받은 사회적 인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한다. 이는 능력에 따른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낸 경우로, '적극적 삶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주요 장면 Pick!

### Pick! 01

“소녀(小女) 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 등이 규방의 소소(小小)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보일 길이 없사온지라. 석(昔)의 당(唐) 태종의 누이 장원 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의 횡행(橫行)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 유전(流傳)하오니, 소녀 등도 이 일을 효칙(效則)하여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하고자 하옵고, 하물며 방금 천하(天下)가 대란(大亂)하매, 소녀 등이 득시지추(得時之推)이거늘, 어찌 한갓 여도(女道)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虛費)하리잇고.”

...(중략)...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行事)를 잡아 짐이 없음이 이 어쩔 일이요. 일후(日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거늘 삼 소저가 체읍(涕泣)하여 고하기를,

“소녀 등의 불초(不肖)하므로 모친께 견책(譴責)이 미치오니, 소녀의 죄 만사무석(萬死無惜)이라. 복원(伏願) 대인(大人)은 소녀 등을 다스리시고 모친을 책(責)하지 마소서.”

하니 유생이 노질(怒叱)하기를,

“내 팔자가 기구(崎嶇)하여 한낱 아들이 없고, 다만 믿는 바, 너의 뿐이려니 이제 너희 이렇듯 패도(悖道)를 행하매 뉘를 원(怨)하리오. 오늘로부터 부녀지(父女之義)를 끊어 다시 대면(對面)치 아니하리라.”

#### ▶ 어떤 장면?

작품이 시작하는 서두 부분이야. 최완 삼 형제의 출생과 성장에 이어 유자주 세 자매의 성장 과정이 제시되고 있지. 그런데 부자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최완 삼 형제에 비해 유자주 세 자매는 아버지 유원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장면이야. 이러한 갈등이 해결, 극복되지 못하자 결국 유자주 세 자매는 남장한 후 집을 나가게 돼.

#### ▶ 선정 이유?

소설의 시작인 만큼 이 장면에서는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아울러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돼. 최문경과 최완 삼 형제는 출장입상하여 입신양명해야 하는 일반적인 남성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지만, 유원경과 세 자매는 서로 갈등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된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생각하며 갈등 양상을 잘 살펴 보자.**

### Pick! 02

“우리 대인 성도(性度)가 급하시거늘, 우리 두 번 범죄(犯罪)하였으매, 반드시 용서치 아니하실지라. 만일 우리 형제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인륜(人倫)이 산란(散亂)하고, 부모의 관인(寬仁) 대덕(大德)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요, 또 아등(我等) 삼 인이 일시의 강세(降世)함은 정녕코 하늘이 유의(有意)하심이니, 어찌 녹록히 규방을 지키어 그저 늙으리오. 잠깐 부모 슬하를 떠나 신명(信明)한 임금을 도아 공명을 이룬 후, 금의환향(錦衣還鄉)하여 부모께 뵈오면 쾌(快)할까 하노라.”

벽주가 이르기를,

“저저(姐姐)의 말씀이 가장 쾌하나, 만일 공명을 이루면 다시 부모를 뵈오려니와, 불연(不然)즉 세상에 버린 사람이 되리니, 기세양난(其勢兩難)이매 저저(姐姐)는 깊이 생각하소서.”

자주가 묵언(默言) 부답(不答)이거늘, 명주 이르기를,

“고인(古人)이 운(云)하되, 대사(大事)를 경영하매, 소소(小小)한 호의(狐疑)를 아니한다 하나니, 우리 무단(無斷)이 사화(事禍)를 당하여 부모에게 누덕(累德)을 끼침이 또한 불효라. 우리 비록 여자이나 또한 하류(下流)가 아니니 십 년 기약하면 일정 소원을 이룰 것이매, 저저는 유예(猶豫)치 말고 일언(一言)에 결단(決斷)하소서.”

...(중략)...

하고 삼 인이 일봉서(一封書)를 뒤아, 동산(東山) 화정(花亭)에 걸고 남복(男服)을 개착(開鑿)한 후, 여간(如干) 노수(路需)를 수습(收拾)하여 사경(四更)에 담을 넘어 달아나니라.

#### ▶ 어떤 장면?

아버지와 갈등 끝에 세 자매가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는 장면이야. 이후 세 자매는 최완 삼 형제를 만나게 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가자.

#### ▶ 선정 이유?

이 장면은 작품 구성 중 발단이 마무리되는 부분이야. 앞으로 전개될 갈등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효에 대한 문제야.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하는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효에 값하는 것인지에 대해 유자주 세 자매는 갈등하다가 결국 후자를 선택하지.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유교적 세계관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자주가 남필(覽畢)에 서중(書中) 사의(事意)가 자기 심사 같음을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양제(兩弟)를 돌아보아 이르기를,

“우리도 이친(離親)한 지 벌써 칠 년이라. 어찌 마음에 맺힌 정이 같지 아니하리오.”

...(중략)...

문득 벽주가 유체(流涕)하며 이르기를,

“우리 천은을 입어 몸이 영귀(榮貴)하였으매 또한 무엇을 바라며, 하물며 위로 임금 을 기망(欺罔)하고 아래로 만조(滿朝)를 속이니, 천지(天地) 귀신(鬼神)과 일정 무이(無異) 여길지라. 이 일이 만일 탄로(綻露)한즉 가장 난처하리니, 일찍 고향으로 돌아감이 어떠하뇨.”

자주가 탄식하여 이르기를,

“우리 규중 여자로서 부모께 죄를 짓고 도망하여, 백만(百萬) 군중(軍中)에 왕래하여 몸이 영귀하였으니, 또한 희한한 일이거니와, 부모가 우리 생사를 몰라 천만 가지로 사 념(思念)하심을 생각할진대, 우리 불효를 면치 못할지라. 어찌 일이나 지체(遲滯)하리 오마는, 성상(聖上)이 불윤(不允)하시므로 천연(遷延) 세월 함이니 어찌 나의 뜻이리오.”

명주가 양형(兩兄)의 말을 들으매 행여 종적이 현로(現露)할까 하여 정색(情色)하여 이르기를,

“우리 부모께 하직을 고하지 못하고 나와, 대사를 도모하여 다행히 소원이 여의(如意)하였으매 이만 기쁨이 없는지라. 이제 금의(錦衣)로 돌아가 부모를 뵈을 때에 부모 가 우리를 잃고 슬퍼하시던 일이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되리니, 어찌 부질없이 슬퍼하 리오. 우리 종적(蹤迹)이 현탈(現頃)하기 전에 아직 남자로 행세하여 천하의 지기(志氣)를 꺾히 하리니, 두 형장(兄丈)은 공연히 번뇌치 마소서.”

#### ▶ 어떤 장면?

남장했던 유자주 세 자매의 정체가 탄로 나는 대목이야.

#### ▶ 선정 이유?

이 장면은 **대화**를 통해 세 자매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유벽주는 정체가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눈물을 흘리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유자주는 부모님을 걱정하고 있어. 유명주는 대사를 도모한 일에 대해 기쁨을 드러내며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자매의 성격이 드러남으로써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야.